

사다리 타기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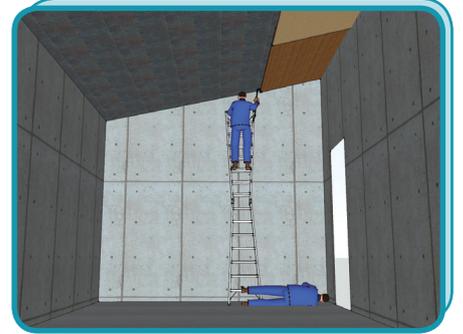


사다리 타기는 운에 맡기는 게임이다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장. 특별한 기능이 없어 10년째 공사장에서 주로 잡일을 하던 중국국적 동포 A씨(63세)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점심내기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한다.

사람 수 만큼 세로줄을 긋고 가로줄을 무작위로 그은 다음 내용을 가리고 순서대로 줄타기를 한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인지 A씨가 아닌 B씨가 점심값 내기에 당첨되었다.

“사다리 타기는 운에 맡기면 된다.”



나홀로 사다리 타기! 오늘 작업도 운에 맡길까?

점심식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A씨에게 1층 천장 부위의 합판거푸집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A씨는 늘 하던 대로 빠루를 들고 작업위치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작업면이 생각보다 높아서 옆에 세워져 있던 A형 사다리를 1자로 펼쳐서 벽면에 세워보니 그럭저럭 높이가 맞았다. 역시 운이 좋았나?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중간정도 올라가니 사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었다.

안전모도 안전대도 없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올라섰다. “거푸집 몇 장만 해체하면 끝나는 일인데...” 거푸집이 생각보다 천장에서 잘 떨어지지 않자 A씨는 이래저래 빠루로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반동으로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A씨는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A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사망한 뒤였다.



반복되는 사다리 사고! 출발점은 안일한 생각...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설마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까?”, “다른 작업방법 보다 사다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A씨는 본인 스스로만 조심하면 이번에도 역시 운이 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다리 작업은 사다리 타기 게임과 다르다. 절대 운에 맡길 수 없다.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보자.

“작업발판 확보, 안전대 체결”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다.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려서 떨어지는 사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사다리 작업처럼 흔들리는 사다리에서 외줄타기 하듯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